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2019. 11.

교 육 부

목 차

I. 추진배경	1
II. 현행 고교체제 문제점 진단	3
III. 추진 방향	9
IV. 추진내용	11
1. 고교유형 단순화 추진	11
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 전환	11
②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의 모집 특례 폐지	13
③ 과학고·영재학교 선발방식 개선	13
2.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14
①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14
②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15
③ 교사 전문성 지원 등 역량 강화	18
④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쾌적한 일반고 환경 조성	19
3.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미래교육 안착	21
V. 향후 추진계획	22
참고1.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주요 방안에 대한 목표치 등 내역	23
참고2. 고등학교 운영 현황	24
참고3. 평준화 지역 현황	28
참고4.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관한 현장 의견	29

I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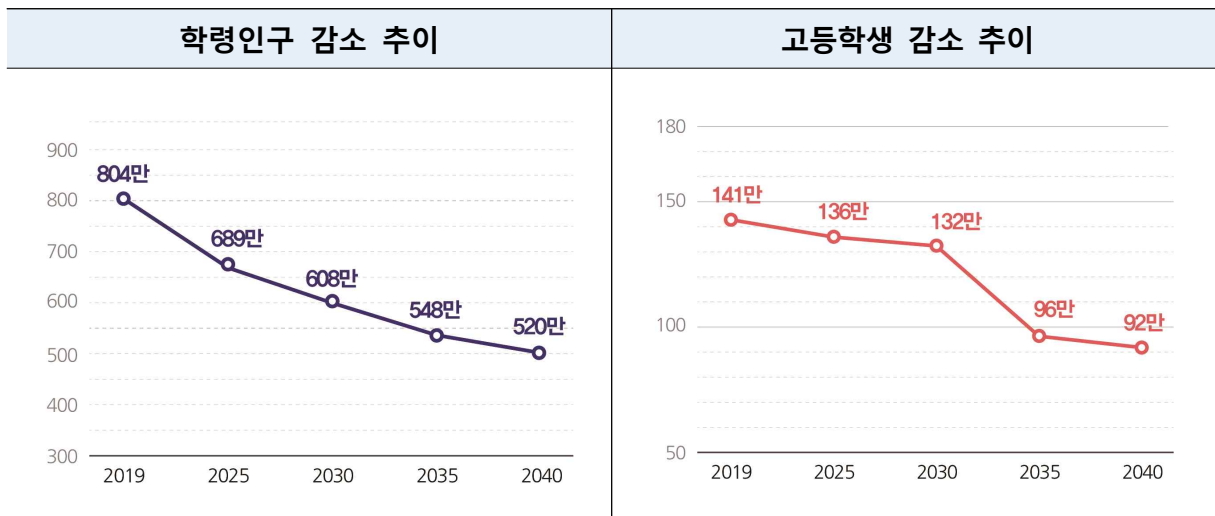
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체제 준비 필요

- 학령인구 및 경제활동 가능인구 급감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학생 개개인 맞춤형 교육체제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 필요성 증대

* 학령인구 추계(만명) : ('19)804 → ('25)689 → ('30)608 → ('35)548 → ('40)520

- 특히, 고등학생도 '19년 141만명에서 '40년까지 약 49만명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 한 명 한 명에 집중하는 고교 교육체제 필요

* 15~17세 추계(만명) : ('19)141 → ('25)136 → ('30)132 → ('35)96 → ('40)92



※ 출처 : 장래인구 특별추계(통계청, 2019)

②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 미래사회는 창의적·융합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 요구

- 학교 유형 분리를 통한 소수 학생에 대한 교육 다양화보다는 모든 학생의 적성·소질에 맞는 교육 제공 필요

- '25년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으로 교육여건 강화 등 사전 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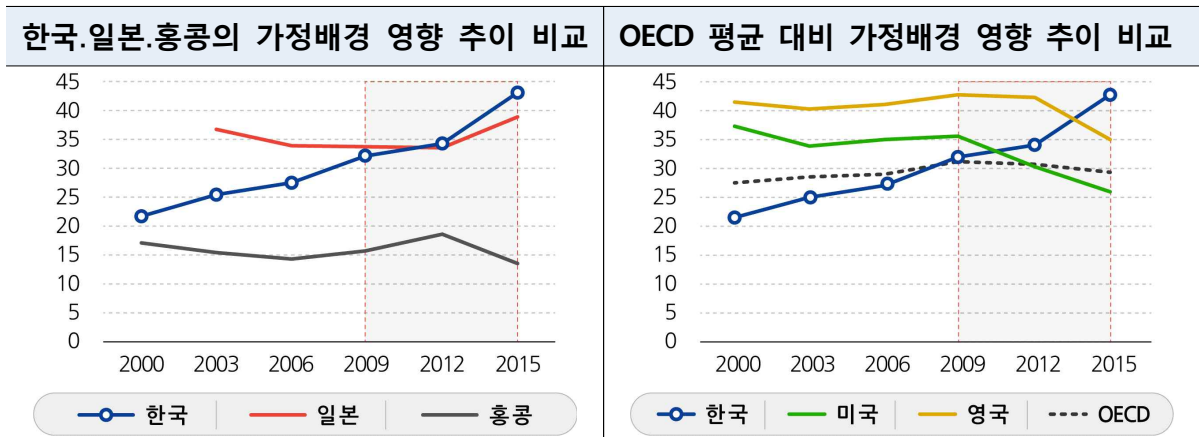
	기존 사회 환경과 인재상	미래 환경 변화와 새로운 인재상
사회 환경	<산업사회> 생산·제조 중심, 선택과 경쟁	<4차 산업혁명>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핵심 역량	읽기, 쓰기, 계산하기 3R(Reading, WRiting, ARithmetic)	창의력, 사고력, 소통, 협력 4C(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학교 교육	지식 전달·암기 중심 수업 결과 중심의 줄 세우기식 평가	학생 성장과 참여 중심 수업 창의력·사고력 중심 과정 평가
인재상	표준화되고 객관화된 지식 습득·전달 능력을 갖춘 인재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공감·연대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

3 교육 공정성 요구 증대

- 우리나라는 ‘가정배경이 학력·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OECD 평균 (29.66)을 상회(42.75)하고, 지속 상승 중

※ 한국(42.75) > 일본(38.7) > 영국(34.93) > 핀란드(34.60) > 미국(25.98) > 홍콩(13.74) 순

< 교육 불평등(가정배경 효과) 국제 비교('00~'15) >



※ 출처 : 「교육불평등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방향」 (KDI, 2017)

-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상실감·좌절감 해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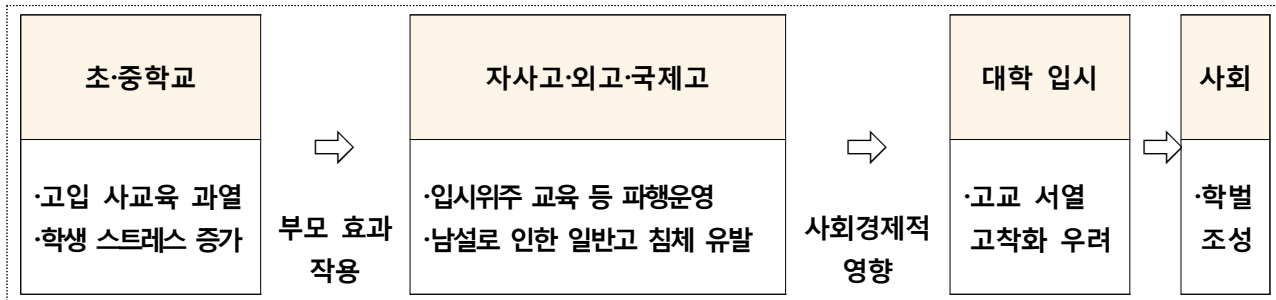
- ▶ ‘한국 사회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 청년인식조사 : ('15) 65.7% → ('16) 73.8%, [기회불평등 2016 보고서]
- ▶ ‘청년 10명 중 6명, 한 번 흡수저는 영원한 흡수저’ : 30세 미만 청년의 61.6%가 계층 이동 가능성 ‘낮다’ 응답, ‘13년 응답(46.8%) 대비 14.8%p 상승(보건사회연구원, '17)

- 특히, 서열화 된 고교체제부터 대학입시 등으로 이어지는 불공정성의 악순환 개선 절실

Ⅱ. 현행 고교체제 문제점 진단

1

서열화 된 고교체제로 인한 교육 전반 왜곡



1 특정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과열

◆ 초등학교·중학교 단계에서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과열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유발

- 자사고·외고·국제고 진학을 위해 초·중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도 증가하여 고입경쟁 과열 및 가계부담 증가

< 진학희망 고교유형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

구 분		전체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과학/외 /국제고)	특목고 (예체능)	특성화고	대안학교	해외유학
사교육비 (만원)	초등학교	26.6	23.9	30.2	37.1	25.9	18.4	17.4	33.2
	중학교	31.2	29.6	42.5	49.3	28.7	18.0	21.3	36.4
참여율 (%)	초등학교	83.2	81.5	85.7	89.8	75.6	81.4	78.7	85.2
	중학교	69.6	69.5	78.8	82.4	66.9	53.5	56.0	65.1

※ 출처 : 사교육비 통계(2019.3월 발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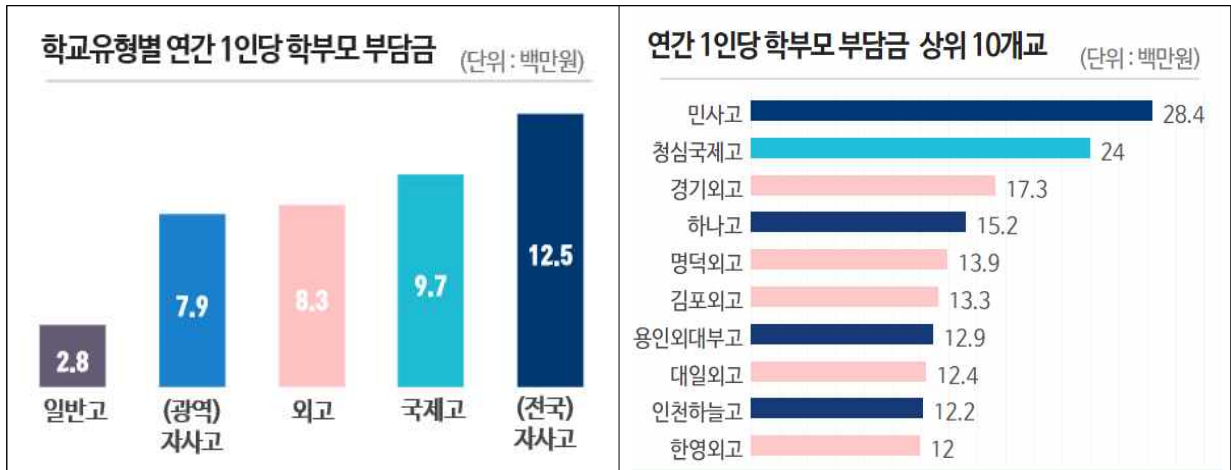
- 고교 유형의 분리는 고입 경쟁을 과열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 가중

※ 진학 희망학교별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정도(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응답) :
(일반고) 38%, (광역 자사고) 41%, (전국 자사고) 62%, (외고·국제고) 68%(고교 입시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연구,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2017))

2 경제력에 따른 고교진학 기회 불평등

◆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 대비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사교육비 등이 높아 모든 학생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한계

○ 일반고 대비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3배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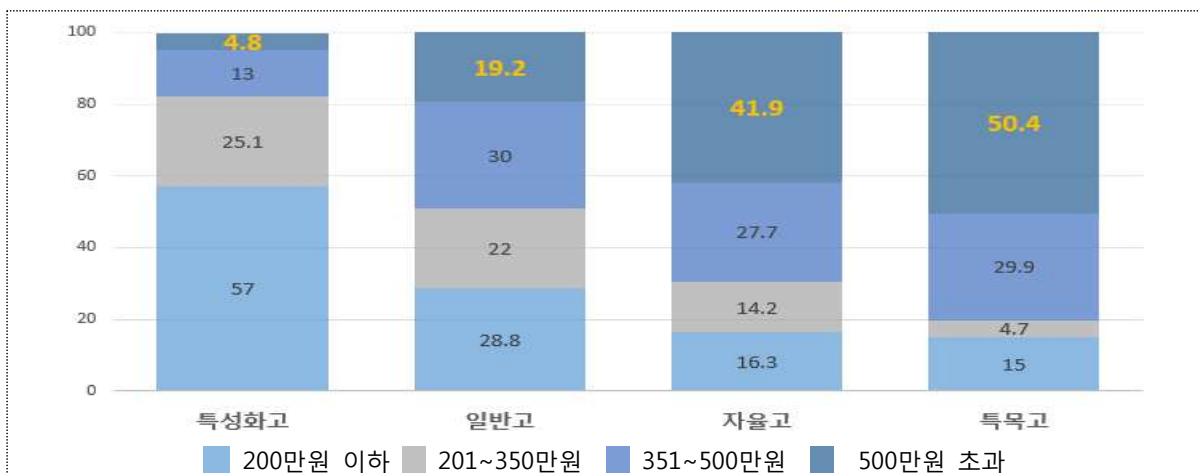


* 1인당 학부모 부담금 = ① 등록금(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② 수익자부담금(교과서비+기숙사비+급식비+체험학습+졸업앨범+기타)

※ 출처 : 학교알리미('18학년도 기준) 등

- 학교 유형별 가구소득도 일반고 대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높음

< 서울지역 고1 학생의 학교 유형별 가구소득 분포(단위 : %) >



※ 출처 :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김희삼, 2015)

- 자사고·외고는 법령 상의 사회배려대상 학생 선발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고교진학에서의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 미흡

※ '19년 사회통합전형 총원율(20%) 준수 : (자사고) 4교/37교, (외고) 6교/30교

3 입시위주 교육 등 파행 운영

◆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성적·입시 중심의 학교운영 등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

-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라는 목적과 달리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 운영

※ ('17학년도 기준) 46개 자사고 중, 29교(63%)가 권장기준 이상으로 국·영·수 교과 편성

< '15 ~'17년 전국 자사고 국·영·수 교과 편성 현황(단위 : 이수단위) >

구분	학교유형	과정명	국어	수학	영어	권장기준 (a)	합계 (b)	초과수준 (b-a)	일반고 대비 국영수 초과시수*
'15년	자사고 (49교)	인문	31.3	29.6	31.7	90.0	92.5	2.5	42.5 시간
		자연	29.0	37.4	30.7	90.0	97.2	7.2	122.4 시간
'16년	자사고 (46교)	인문	29.8	28.1	31.2	90.0	89.2	-	-
		자연	28.5	36.8	29.9	90.0	95.2	5.2	88.4 시간
'17년	자사고 (46교)	인문	29.6	28.4	30.1	90.0	88.2	-	-
		자연	28.3	36.3	29.1	90.0	93.7	3.7	62.9 시간

* 이수단위 1은 17시간 수업과 동일 / 시도교육청 수합자료

- 외고·국제고는 외국어분야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 대비 어문 계열 진학 현황이 미흡

*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①항 제6호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 및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교 운영

※ 외고·국제고 어문계열 진학현황('19학년도) : (외고) 40.0%, (국제고) 19.2%
- (과학고) 이공계 96.8% 진학과 대비됨(시도교육청 취합 자료)

- 자사고 등의 입시 중심 교육은 고교단계 뿐만 아니라 대입 결과 등에도 지속 영향

- 학종과 수능의 고교유형별 합격률(해당 전형별 지원자 대비 합격자) 모두 서열화 된 고교 순서와 동일(과고·영재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 (학종) 과고·영재고 26.1% > 외고·국제고 13.9% > 자사고 10.2% > 일반고 9.1%
(수능) 과고·영재고 24.3% > 외고·국제고 20.2% > 자사고 18.4% > 일반고 16.3%

4 일반고 교육력 저하 우려

◆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 학생 쏠림현상은 일반고 교육력을 저하시키고, 학생들의 자신감 하락 등 유발

○ 서열화 된 고교체제는 특정학교로의 우수학생 쏠림현상 과열

※ 다양한 학생들이 한 교실에 있으면서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을 서로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진정한 의미의 교육(폴 토런스상 수상자 김경희교수)

< 서울지역 학교유형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서울시 교육청, '18) >

연번	내신 석차 백분율 분포(단위 : %)									
	10% 이내	10% ~20%	20% ~30%	30% ~40%	40% ~50%	50% ~60%	60% ~70%	70% ~80%	80% ~90%	90% 이상
일반고 (204교)	8.5	9.8	10.3	10.7	10.9	10.5	10.5	10.4	9.7	8.7
자사고 (23교)	18.5	17.8	16.0	11.7	10.2	7.6	6.2	4.1	3.5	4.3
외고.국제 고 (7교)	44.4	24.9	13.2	6.4	4.9	2.4	1.2	1.3	0.8	0.3

○ 일반고 학생은 자기관리역량(긍정적 자아의식, 자기주도성 등)*을 자사고·외고 등 학생들보다 부정적으로 인식, 학생 개개인의 자신감 신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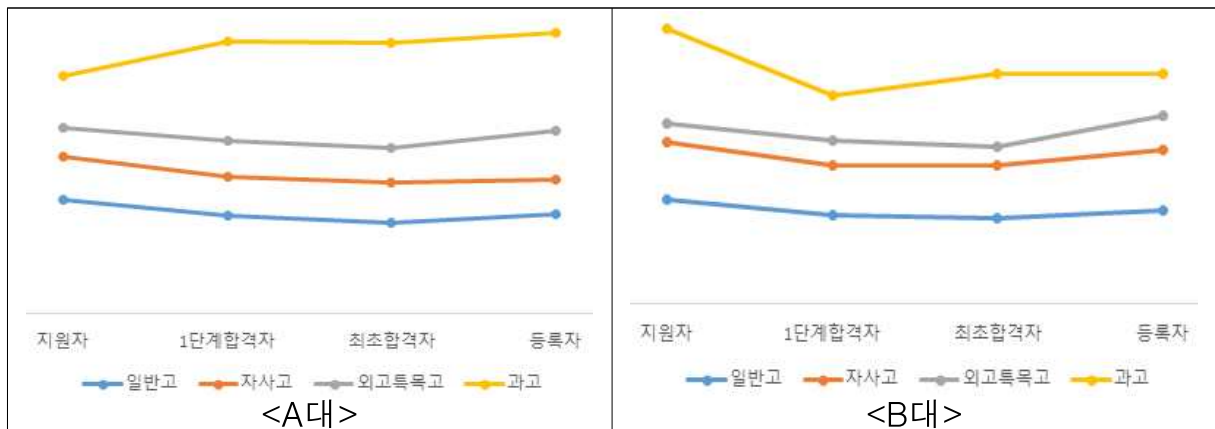
* 긍정적 자아의식, 자기주도성 등 : 특목고 71.82점 > 자율고 67.83점 > 일반고 65.58점 > 특성화고 61.67점(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의 핵심역량 측정 및 과제(KEDI, 2019))

5 대학 진학에서의 고교서열 확인

- 대학별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서열화 확인 및 서열화 고착화 우려*

*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 제공 등 특정 고교 유형 우대 가능 정황 확인

<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 사례 >



< 사례 ① : '19학년도 E대 ○○전형 △△학과(계열) 분석 >

- 평균 내신등급 : (지원자) 일반고(1.98)>자사고(3.44)>외고·국제고(3.62)
(합격자) 일반고(1.30)>자사고(2.26)>외고·국제고(2.86)
- 고교유형별 합격률* : 외고·국제고 19.5%, 자사고 5.7%, 일반고 4.3%
- * 고교유형별 합격자/해당 고교유형별 지원자

< 사례 ② : '18학년도 F대 △△전형 ☆☆대학 분석 >

- 평균 내신등급 : (지원자) 일반고(2.09)>자사고(3.33)>외고·국제고(3.59)
(합격자) 일반고(1.50)>자사고(2.60)>외고·국제고(2.86)
- 고교유형별 합격률* : 외고·국제고 23.1%, 자사고 10.8%, 일반고 9.3%
- * 고교유형별 합격자/해당 고교유형별 지원자

- 또한, 특기자전형 중 일부는 어학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하여 특정 고교 유형 출신이 유리

< 일부 특기자 전형 평가내용 >

- A대 : (인문계) 외국어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로 지원자격 설정
- B대 : (국제계열) 영어면접 실시

2

일반고 교육 변화 요구 증대

◆ 일반고 내 모든 학생의 진로와 희망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요구 증가

- 학교유형의 다양화가 아닌 일반고 내 학생의 흥미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요구 지속

※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일괄 전환에 대한 국민여론(리얼미터, '19.10.16.) : 찬성 54%, 반대 36.4%

- － 학생·학부모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진로·진학과 연계한 학업 설계 등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흥미에 따른 학습 제공 요구

※ 고교교육에 바라는 점: 보다 다양한 선택교과(과목) 개설 및 운영(학생: 54.9%), 대학·교육기관·기업 등 외부 연계 프로그램 확대(학부모: 60.6%) (교육부, '18.11)

- － 현장 교원도 다양한 교과 및 진로·진학 교육을 위한 전문성 신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

* 긍정답변 43.4%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강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KICE '18.)

< 일반고 교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 ※ <참고2. 9번> 참조

- ❖ (과목선택권 확대 요구) 학생 학부모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대학 등과의 외부 연계프로그램 확대를 희망

※ 고교교육에 바라는 점: '보다 다양한 선택교과(과목) 개설 및 운영' (학생: 54.9%), 대학·교육기관·기업 등 외부 연계 프로그램 확대(학부모: 60.6%) (교육부, '18.11)

- ❖ (진로 및 진학지도 강화 요구) 일반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진로·진학과 학업 설계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지도 필요성 공감

※ 진로탐색과 과목선택 연계를 위한 교사 지도성 강화 요구 학생(70.1%), 교사(86.1%), (고교 과목선택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교육부·경희대 '18.12)

- ❖ (고교 공간 혁신 필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시설 개선 요구 및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기술과 연계하여 교수·학습 및 학교공간에의 접목 필요 증대

※ 학점제 도입 선결 사항: 교실 확보 및 홈페이지 구축 41.9%(서울교원 설문 '17.)

※ AI 등 4차 산업혁명이 영향을 줄 학교 교육 요소(교원 및 교육전문직 설문 '17.): 수업 방법 (34.7%), 교육 목표·교육 과정(33.3%), 기술 인프라(20.1%)

Ⅲ. 추진 방향



【 주요 예산 및 추진 체계 】

▣ 일반고에 5년 간 약 2조 2천 억 원 투입

구 분	예산액	비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화 및 내실화 등 교육력 제고	7,867억원	
교원 전문성 제고 및 전문강사 등 확보	1,914.5억원	
학교 공간 혁신 및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12,023억원	
계	21,804.5억원	

▣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

○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단장 : 부총리) 운영을 통한 안정적 정책 추진

-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및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신설)을 포함한 고교교육 혁신 점검단 운영을 통해 추진 성과 및 개선 사항 점검 ('19~)



○ 교육부-시도교육청 간의 상시적 협력 추진

- 부총리-시·도교육감 간 고교체제 개편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을 위한 상시 협의채널 구축 ('19.하)

※ 실무지원을 위해 기존 자율팀인 고교학사제도혁신팀을 과(課) 단위 정규조직으로 승격

IV. 추진내용

1 고교유형 단순화 추진

- ◆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5년 3월 일괄 일반고 전환, 학교명칭 사용 및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은 가능
- ◆ '20년 이후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모집 특례 폐지 및 과학고·영재학교 선발방식 개선

1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 전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19.하~)을 통해 '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

※ 법령 개정 시, 자공고도 동일한 일정·방식으로 전환 추진

-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일괄 전환 전 입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 유지

< 참고 : 고교유형 단순화(안) >

2025년 3월 이전		➔	2025년 3월 이후	
일반고			일반고	
자율고	자사고			
	자공고			
특수목적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영재학교		

- '20년~'24년까지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통합전형 선발·법정부담금 납입 등 책무사항 지도·감독 강화
- '25년 이후 전환한 학교는 현재 일반고와 동일하게 선발방식(평준화 : 교육감 배정, 비평준화 : 학교장 선발)이 변경되고, 무상교육 지원

❖ 학생모집방식 변경 예시(2019년 기준)

- 관할 시·도교육청의 고입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 모집 방법 상이

※ 시·도교육감이 고교체제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

- 전국단위 자사고(전국단위 → 광역단위 등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전북 상산고 (평준화)	전국에서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감 배정 ▶ 평준화 지역은 전주 학군 내에서만 지원 ▶ 비평준화 지역 학생도 지원
울산 현대청운고 (평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감 배정 ▶ (1단계) 울산 전역에서 지원 ▶ (2단계) 거주 학군에서 지원
강원 민족사관고 (비평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장 선발 ▶ 강원 전역에서 지원

- 기타 자사고·외고·국제고(광역단위 → 광역단위 등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서울 대원외고 (평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전역에서 지원 가능 ▶ 외고 없는 시도(세종, 광주)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감 배정 ▶ (1단계) 서울 전역에서 지원 ▶ (2단계) 거주 학군에서 지원
고양국제고 (평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전역에서 지원 가능 ▶ 국제고 없는 시도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감 배정 ▶ 해당 학군 내에서 지원 ▶ 비평준화 지역 학생도 지원
강원외고 (비평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전역에서 지원 가능 ▶ 외고 없는 시도(세종, 광주)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장 선발 ▶ 강원 전역에서 지원

-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명칭 사용 및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가능

< 일반고 전환 학교 운영 사례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

- (전환시기) 자발적 전환 신청, '19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운영
- (학교명칭)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그대로 사용
- (교육과정) 기존 재학생은 외국어고 교육과정 지속 운영, 신입생은 일반고 적용
- 글로벌 창의융합 교과특성화 학교 운영 등 교육 지원

- 전환학교당 3년 간 10억 원 지원, 시·도교육청-학교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반고 운영 협조

-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시·도교육청별 탄력적인 교원배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학교유형 전환으로 인한 교원 불이익 방지

※ (공립) 교원전보 활성화, (사립) 과목변경 및 전보 지원, 시·도교육청별 특별채용 등

2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의 모집 특례 폐지

-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49교)의 모집 특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1375호 제4조)를 폐지하여, 다른 유형의 고교서열화 사전 방지
 - ※ 시·도교육청별로 전국단위 모집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고(예술·체육계열, 직업계열 등)는 해당 기능에 맞게 학교유형 변경 등 검토
 - ☞ 예 : 전국단위 일반고 예술·체육계열 → 특목고(예술고·체육고) / 직업계열 → 특성화고
-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5.3월에 동시 적용하여 학교현장에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 전국단위 일반고 학생모집방식 변경 예시(2019년 기준)

- 학교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의 고입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 모집 가능
 - ※ 시·도교육감이 고교체제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공주사대부고 (충남, 비평준화)	전국에서 지원 가능	▶ 학교 장 선발 ▶ 충남 전역에서 지원 가능
익산고 (전북, 평준화)		▶ 시·도교육감 배정 ▶ 평준화지역은 익산 학군 내에서만 지원 가능 ▶ 비평준화지역도 지원 가능
세종고 (세종, 평준화)		▶ 시·도교육감 배정 ▶ 세종시 전역에서 지원 가능

3 과학고·영재학교 선발방식 등 개선

- 과학고(20교), 영재학교(8교)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정비 필요
- 학생모집 시기, 모집방법 등 전반적인 제도 및 운영 상황을 검토 후,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예시 : 영재학교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영재학교 지원시기 동일화(현재 영재학교 후 과학고를 선발하여 중복지원 가능) 등 검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고 운영성과평가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차질 없이 진행

2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20년~)

1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 학생별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생 스스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진로·학업설계를 지원합니다.

□ 학생 성장 중심의 진로 설계 지원

- 고교 단계에서 학업 설계 등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에 따라 진로집중학기제* 운영 추진

* 중 3학년 2학기 및 고1학년 1학기에 진로 적성검사 및 교과통합 진로교육, 현장 밀착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제공

- 학생의 개별적 학습경로, 교과이수이력 및 학습능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격차 완화 방안 마련*

* 교과별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 단계적 의무화 및 기재 표준안 마련을 통한 교원역량 강화

□ 단위학교 내 진로·진학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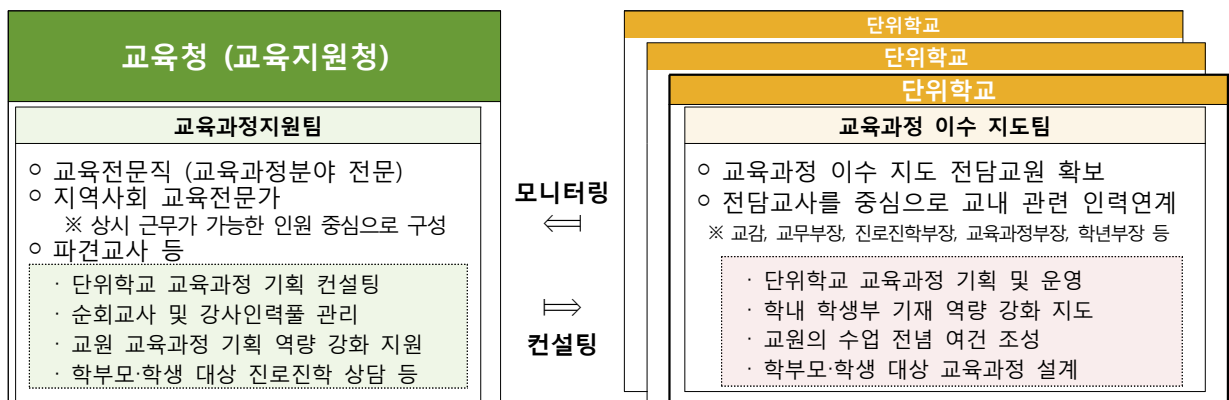
-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지원팀'을 구성('20)하여 단위학교 밀착형 교육과정 기획 및 컨설팅 등 지원 추진

※ 총액 인건비 확대를 통한 시도교육청별 전문직 인원 추가 배정 : ('20.) 82명 → 단계적 확대

- 단위학교에 교육과정·진로설계 전문 인력 확보 및 전담팀 구성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원스톱 진로·진학 상담 시스템 운영

※ 단위학교 내 교육과정 및 진로설계 전문 인력 배치 (교당 1명)

<교육과정 지원팀 구성 및 운영(예시) >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진로·진학지도 전문 교원을 양성·배치하여 진로 및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현장 요구 충족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학원 연계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과정*을 도입하여 학교 내 진로 및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
 - * '20년 시범운영(서울대·한국교원대, 100여명 대상) → '24년까지 교당 1명 이상 연수
 - ※ 고1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 개설 등 운영

< 진로·학업설계 분야 투자 계획, 향후 5년 간 목표치 및 소요 예산 >

	'19년	'20년	'24년 목표	5년 간 총 투입예산
학점제 전문가 양성 대학원 연계 연수 인원	100명	100명	(누적)총1,600명	42.5억원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진로·진학 시스템 인력 확보	82명		단계적 확대	국고 및 총액인건비 확보

2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 ▶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서 진로에 따른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학생의 진로와 학습역량에 맞는 과목선택권 확대

- 학생의 진로·적성, 학습수준에 따른 탄력적인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근거 마련 및 학교장 학사운영 다양성 제고

<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 >

- ◆ (필수이수단위 유연화) 학교장 판단 하에 학생별 필요*에 따른 이수 단위 조정 허용
 - * 예) 맞춤형 심화학습, 예술·직업 계열, 직업·대안교육 희망 학생 등
- ◆ (대체이수 허용)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공통과목(수학·영어)을 실용 수학·실용 영어 또는 기초수학·기초영어(신설)로 대체 이수 허용
- ◆ (이수과목 수 제한 완화) 학생의 진로에 적합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상황*에 따라 학기당 이수과목 수 제한(8개과목 이내) 개선
 - * 총론 상 근거를 토대로 학교별로 학운위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적용하도록 안내
- ◆ (수업량 유연화) 1단위 수업량을 현행 대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예 : 현행 1단위 기준 17회 수업 → 16(수업)+1(재량운영))

<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예시) >

- ① **진로집중형** : 진로설계·체험,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진로집중학기제 운영 보조
- ② **학습몰입형** : 교과 별 심화 이론, 과제 탐구 등 심층적 학습 시간 운영
- ③ **보충수업형** : 학습 결손, 학습 수준 미흡 학생 대상 보충수업
- ④ **동아리형** : 토론 및 학습동아리 운영, 교과에 관한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운영
- ⑤ **프로젝트형** : 교과 융합학습을 위한 PBL 수업, 직업 체험 프로젝트 등 운영

- 학생의 학습 역량에 따른 **융·심화교과** 등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 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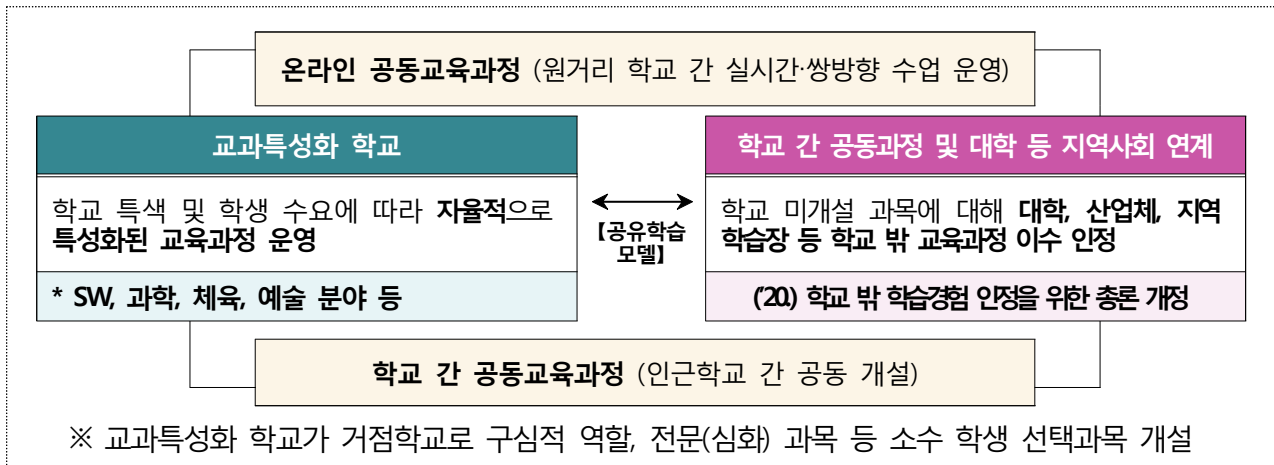
* 과학, 어학, 예술, SW 등 특정 분야의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고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인정도서 관련 지침 완화 등 제도 간소화 추진('19.말)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학업 수요 등을 반영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 다양한 교과특성화학교로 구성된 공동교육 클러스터 구성 등 공유학습 모델 구축

< 공동교육 클러스터 운영(안) >



-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증대에 대응하여, '교과 순회교사제*' 등 교원 증원 및 교원 배치 유연화 추진

* 행정기관 배치: 교과전담으로 도시 외곽지 및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 과목 개설 지원

※ 선택과목 다양화에 따른 교원의 수업 전념 및 소규모학교 과목선택권 보장 ⇒ 교원 확충 추진

- 신산업 분야 등 표시과목이 없거나 교원 자원이 부족한 과목*의 과목 개설을 위한 다양한 전문 강사 확보 등 추진

* (예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 로봇 관련 등

□ 일반고 내 예술·체육계열 심화교육 제공

- 예술·체육계열 진로희망 학생에 대한 교과 이수부담 완화를 통한 심화 교육 여건* 제공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집중 교육과정** 운영
 - * 필수이수단위 축소 등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및 학교 내 실기·실습 기회 확대 등
 - ** 예술·체육 특목고, 대학 및 예술·체육단체 등 유관전문기관과 연계한 고급(전문)과정 운영
- 농산어촌 및 교육소외 지역에 예술·체육 지역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예술·체육교원 집중 배치 및 교구 확보 등 예술·체육교육 기반 강화
 - ※ 예술·체육 분야 희망수요 등을 고려, 예술·체육과정 지역거점학교를 집중 육성(21.~)

□ 일반고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 직업교육 희망 학생이 조기에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수 이수단위 기준 완화 등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강화
 - ※ 특성화고 수준의 필수이수단위(94→66단위)이수 후 직업분야 집중교육 이수
- 산업계 및 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전문대, 특성화고 및 산업정보 학교 등을 통한 양질의 직업교육위탁 기회 확대
 -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고 학과 개편 및 산업정보학교 신설 등 현장 요구 반영

□ 기초학력부진, 학업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업안전망 확충

- 누적된 학습 결손 등으로 인해 학업 수행이 어려운 학생에게 심리 상담 및 대안적 교육과정 등 개별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
 - 공통과목 수준의 학업 수행도 어려운 학생의 기초 학습능력 함양 등을 위한 신설과목(기초수학·기초영어) 개발·보급 추진
 - ※ 입학 전 기초학력 진단검사 등 학습능력에 대한 개별 진단 실시, 대체이수 등 결정
 - 기초학력 부진, 누적된 학습 결손 등 학업 부적응에 대한 전문적 진단 및 처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 치유 센터' 설치

< 고교 학습 치유 센터 설치(안) >

- 기초학력부진, 학교부적응 학생에게 지역 대학, 민간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심리 상담부터 학습 처방까지 제공하는 센터를 설치 학생별 학업 안전망 구축

☞ 예 : 대학 교원(사범대, 심리학과 등), 대학 병원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센터를 대학 등에 설치

- 학업중단이 다수 발생한 학교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 강화하고, 학업중단 원인의 근원적 처치를 위한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확대

※ 학교 내 대안교실 확대('19년 325학급 → '22년 400 학급 내외) 및 시·도별 대안학교 확대

※ 대안교육 위탁(오디세이학교 등) 시 대안학교 수준의 필수이수단위 적용 등 자율성 부여 검토

※ 학생의 진로탐색 및 학업설계를 위한 진로 휴학제(Gap year) 등 도입 검토

< 맞춤형 교육 제공 분야 향후 5년 간 목표치 및 소요 예산 >

	'19년	'20년	'24년목표	5년 간 총예산
교과특성화학교	211교	310교	800교	372억원
예술체육계열 중점교육과정	-	100개	500개	300억원
전문대 연계 직업위탁교육 참여 학생	1,200명	900명	1,800명	239억원
다양한 교과목 전문강사 확보 지원 학교	340교	340교	340교	1,225억원
학교 내 대안교실 등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	325교실	('22)400교실	800교실	1,050억원
교육과정 다양화 및 내실화 지원 비용(전체교교)	400억원	550억원	1000억원	4,100억원
공동교육과정 참여인원 (오프라인 기준)	24천명	28천명	38천명	1,130억원
학교 간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개설 교과목	247과목	340과목	1,000과목	304억원
합계				8,720억원

3 교원 전문성 지원 등 역량 강화

- ▶ 교원 양성 및 연수시스템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 혁신 주체인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교원양성 및 연수시스템 혁신

- 미래의 교원이 갖추어야 할 수업 및 진로 지도 등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안 마련('19.12) 및 적용('21.~) 추진

※ 복수전공 요건 완화, 학교 현장실습 기간 방식 다양화, 전공·교직과목 내용 및 수업방식 개선 등

- 다교과지도 및 교직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직무수행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직 생애 주기별 연수* 강화

* 학습연구년제를 활용한 주기별 연수 실시 및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 과정 신설(초중고교원 연간 천명, 5년간 5천명 양성, '20학년도 2학기~)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의 양성·임용·연수·능력 개발·승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원 대책 마련

< 교원 역량 강화 분야, 향후 5년 간 목표치 및 소요 예산 >

	'19년	'20년	'24년 목표	5년 간 총 투입예산
SW 융합대학원 교육 대상자 (초중고 교원)		1,000명	(누적) 5,000명	325억원
소수과목자격 교사에 대한 복수자격연수	100명	120명	(누적) 910명	50억원
학습연구년제를 활용한 전문성 신장 연수	852명	1,120명	(누적) 7,920명	272억원

4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쾌적한 일반고 환경 조성

- ▶ 집 가까운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이자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모든 학교가 교육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미래형 학교로 변화합니다.

□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 첨단기술을 포함한 사용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미래학교 모델 모색 등 학교공간혁신 사업 추진
 - 학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 조성을 위한 '미래형 학교' 신개축 추진
 - ※ (학교 공간 혁신) 시범사업 추진('19~'20) → 학교공간혁신사업 본격 추진('21~)

< 미래학교 모델(안) >

- ❖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공간 조성) 프로젝트 학습, 토의·토론 등 다양한 수업 방식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교육 공간 재구조화
 - ※ 학급(학년-반) 중심의 공간 배치에서 과목·주제 중심의 수업 운영 공간으로 인식 전환
- ❖ (사용자 친화적 학교 공간 혁신) 학생·교사·지역주민 참여하여 학교가 단순히 학습의 장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휴식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
 - ※ 학생과 교사를 중심으로 한 학교 공간배치 및 지역주민과의 연계 강화
- ❖ (어디에 있든 배움의 기회 보장) 학교 간 거리 등으로 인한 시공간적 제약 없이 희망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보장
 - ※ 도서벽지 등 원거리 및 소규모학교에 온라인 교육과정 플랫폼을 활용한 선택과목 수업 제공
- ❖ (첨단기술을 통한 체험형 학습 제공) 첨단 ICT기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생활 체험 또는 탐구 활동 등을 수행
 - ※ AI 기술을 활용한 학생의 학습과정을 모니터링 및 학습능력에 맞는 다양한 피드백 제공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ICT 융합 미술실	학생 중심의 쾌적한 교실	휴게 공간이 조성된 홈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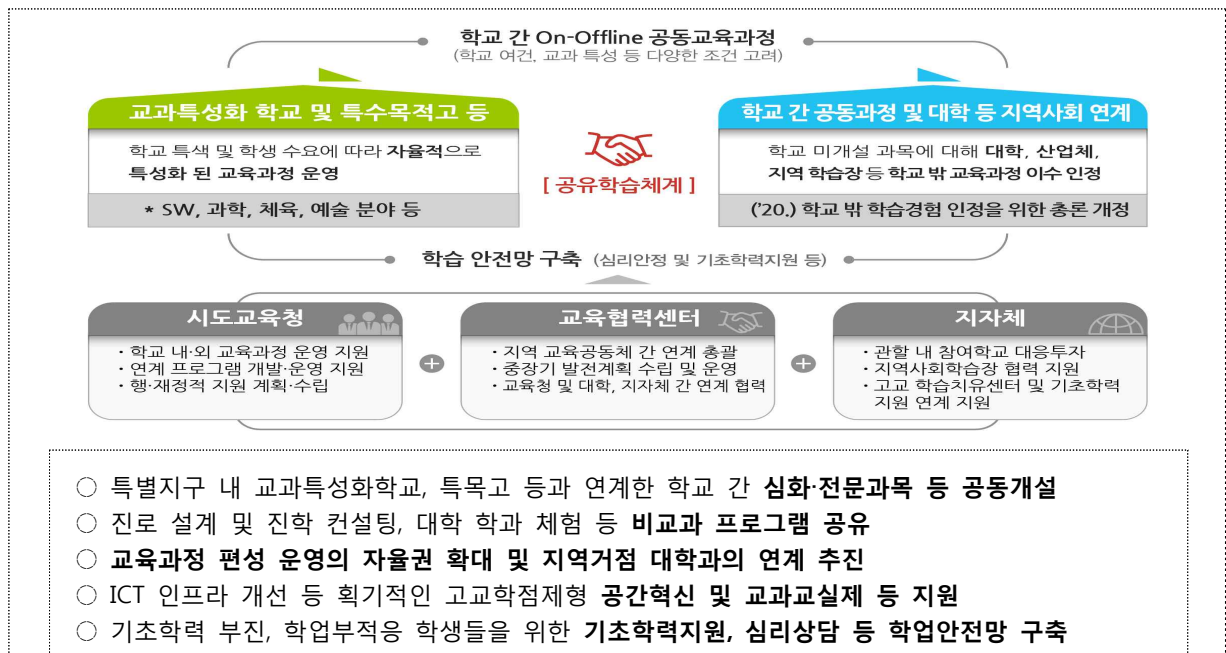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ICT 활용 수업 등 미래형 수업을 위한 무선망 구축* 및 정보화 기기 확충 등 미래교육 기반** 마련

* '24년까지 모든 고교 전 교실 무선망 단계적 구축(총2,200억원) 및 태플릿 등 확충
 ※ 무선망 구축 교실은 가변형으로 설계하여 필요 시 개별화된 학습여건 마련

□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 집중 지원

- 농산어촌, 도서벽지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 여건 확보를 위한 교원 및 인프라 집중지원 등 추진
 - ※ 시간 강사비 지원, 교원의 부전공 이수, ICT 인프라 구축 등 온라인 과정 지원 및 지역 인재 수요(산업체, 행정·기술직공무원특채 등) 고려한 취업 맞춤형 교육 강화
 - ※ 농산어촌 중심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24. 총304억 투입): 소수선택과목 등 개설
- 교육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특목고 등과 심화교과 및 진로·진학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가칭)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 (가칭)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안) >



< 미래형 학교 구현 분야, 향후 5년 간 목표치 및 소요 예산 >

	항목	'19년	'20년	'24년 목표	5년 간 총 투입예산
학교공간 혁신 (개교)	영역단위	24	32	('23.) 56	8,723억원
	학교단위	3	11	('23.) 27	
	교과교실제	54	37	80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지원				연간 220억	1,100억원
고교 전 교실 무선망 교실 구축				누적 4만실	2,200억원
(가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4		(누계) 25개	372억원
합계					12,395억원

□ 학생성장 중심 교육체제, 고교학점제 도입

- 법령 개정 및 교육과정 전면 개정 등 학점제 도입 기반 강화(~'24.)
 - * ('20.) 총론 부분 개정('22년 적용) → ('22.) 학점제형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정 고시
- 졸업학점 및 이수·미이수 도입 등 학점제 기반의 학사제도 운영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적용으로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25.~)
-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에 따른 미래 역량 중심의 인재 선발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 추진 ('20.~)

<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미래 교육 안착 추진(안) >

구 분	도입기반 마련 ('20년 ~ '21년)	학점제 부분 도입 ('22년 ~ '23년)	학점제 기반 안착 ('24년 ~)
주요 적용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적용 ('20.) ○ 마이스터고 학점제 우선 도입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고 학점제 학사운영 부분 도입 ('22.) ○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고교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
법령 및 총론 등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종합계획안 발표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비전, 일정 등 제시 -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 ○ 고교학점제 근거마련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 전면 개정('22.) ○ 성취평가제 내실화 방안 마련('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학점제형 교육과정 전면 시행 ('25.~)

Ⅵ. 향후 추진계획

□ 법령 정비 등을 통한 단계적 고교서열화 해소 추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19년 하반기
 - ※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의 모집단위 변경 내용 포함
-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선발방식 등 개선방안 마련 : '20년 상반기
-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 전환 추진 : '25년 3월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

-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 '19년 12월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계획 발표 : '19년 12월
-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발표 : '20년 1월

참고1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주요 방안에 대한 목표치 등 내역

	항목	5년간 추진 예산 (목표치)					비고
		기준	19년	20년	'24년까지	5년 간 소요예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화 및 내실화 등 교육역량 강화	교과특성화 학교	교과특성화 학교 수	211교	310교	800교	372억원	
	고교교육 특별지구 운영	고교체제개편 연계	-	4개	25개	372억원	
	예·체육계열 심화교육 개설 교육과정 수	예체육계열 거점학교 등	-	100개	500개	300억원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지원	참여학생 수	1,200명	900명	1,800명	239억원	
	학교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개설 교과목 수	247과목	340과목	1,000과목	304억원	
	공동교육 클러스터 운영 지원	공동교육과정 참여 인원	24천명	28천명	38천명	1,130억원	
	학교 내 대안교실 등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	대안교실 수	325교실	(‘22) 400교실	800교실	1,050억원	
	일반고 교육력 내실화	교육과정 다양화 진로·진학지도	전체학교 대상			4,100억원	
	소계					7,867억원	
교원 전문성 제고 및 전문강사 등 확보	학점제 전문가 양성 대학원 연계 연수	대상자		100명	교당 1명	42.5억원	
	소수과목자격 교사에 대한 복수자격연수	대상자	100명	120명	(누적) 910명	50억원	보통교부금
	학습연구년제를 활용한 전문성 신장 연수	대상자	825명	1,120명	(누적) 7,920명	272억원	보통교부금
	SW 융합대학원	대상자		1,000명	1,000명	325억원	
	다양한 교과목 전문강사 확보	지원학교 수	340교	340교	340교	1,225억원	보통교부금
	소계					1,914.5억원	
학교 공간 혁신 및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학교공간 혁신	영역단위	24	32	(‘23.) 56	8,723억원	보통교부금
		학교단위	3	11	(‘23.) 27		
		교과교실제	54	37	(‘23.) 80		
	학교 무선망 구축	설치 교실(교당)	4실	모든 교실로 단계적 확대		2,200억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대상 시도	4	8	17	1,100억원	
	소계					12,023억원	
합계					21,804.5억원		

참고2

고등학교 운영 현황

1.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2019.4.1. 교육통계 자료)

구분	전체	일반	특성화	특수목적고	자율고	
					자공고	자사고
학교수(교)	2,356	1,555	490	157	112	42
학급수(개)	57,654	39,694	10,804	2,857	3,005	1,294
학생수(명)	1,411,027	1,001,756	230,196	65,146	75,093	38,836
비율(%)	-	71.0	16.3	4.6	5.3	2.8

* 폐교(4개교)제외

구분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8교 포함)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학교수(교)	30	7	28	29	16	47
학급수(개)	720	135	418	506	135	943
학생수(명)	17,036	3,173	6,911	16,443	3,829	17,754
비율(%)	1.2	0.2	0.05	1.2	0.03	1.3

2. 2025년 일괄 전환 대상 학교(2019.4.1. 교육통계 자료)

□ 총 79개교(전체 고등학생 대비 재학생 비율 4.2%)

시도 유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자사고	22	1	3	2	-	2	1	-	2	1	-	2	3	1	2	-	-	42
외고	6	2	1	2	-	1	1	-	8	1	1	1	1	1	1	2	1	30
국제고	1	1	-	1	-	-	-	1	3	-	-	-	-	-	-	-	-	7
합 계	29	4	4	5	0	3	2	1	13	2	1	3	4	2	3	2	1	79

□ 전환 대상 학교 유형별 현황

○ 자사고 현황

연번	시도	행정구	학교명	개요		규모	
				개교	운영	학급수	학생수
1	서울	동작구	경문고	1980	2011	30	911
2	서울	동대문구	경희고	1960	2010	24	794
3	서울	동대문구	대광고	1949	2011	30	1,001
4	서울	종로구	동성고	1938	2010	33	1,087
5	서울	강동구	배재고	1885	2010	36	1,226
6	서울	송파구	보인고	1908	2011	36	1,259
7	서울	도봉구	선덕고	1983	2011	34	1,152
8	서울	서초구	세화고	1987	2010	36	1,151
9	서울	서초구	세화여고	1978	2011	36	1,153
10	서울	마포구	송문고	1946	2010	23	728
11	서울	강북구	신일고	1966	2010	33	1,132
12	서울	양천구	양정고	1905	2011	36	1,226
13	서울	서대문구	이대부고	1958	2010	36	1,194
14	서울	중구	이화여고	1886	2010	36	1,283
15	서울	영등포구	장훈고	1964	2011	32	1,034
16	서울	강남구	중동고	1906	2010	36	1,225
17	서울	종로구	중앙고	1908	2010	30	1,005
18	서울	은평구	하나고(舊자립형)	2010	2010	24	620
19	서울	양천구	한가람고	1997	2010	24	849
20	서울	성동구	한대부고	1960	2010	36	1,267
21	서울	강남구	현대고	1985	2011	38	1,298
22	서울	강남구	휘문고	1906	2011	40	1,365
23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고	1980	2010	24	651
24	대구	남구	경일여고	1980	2011	24	773
25	대구	서구	계성고	1906	2010	30	1,029
26	대구	달서구	대건고	1946	2011	30	1,008
27	인천	연수구	인천포스코고	2015	2015	16	487
28	인천	중구	인천하늘고	2011	2011	24	661
29	대전	중구	대성고	1955	2011	31	1,044
30	대전	서구	대전대신고	1972	2013	30	1,025
31	울산	동구	현대청운고(舊자립형)	1981	2010	18	542
32	경기	안산시	안산동산고	1995	2010	40	1,464
33	경기	용인시	용인외대부고	2004	2011	30	1,103
34	강원	횡성군	민족사관고(舊자립형)	1996	2010	33	461
35	충남	천안시	북일고	1976	2010	36	1,072
36	충남	아산시	충남삼성고	2014	2014	30	1,012
37	전북	군산시	군산중앙고	1961	2011	24	748
38	전북	익산시	남성고	1946	2011	30	1,037
39	전북	전주시	상산고(舊자립형)	1981	2010	36	1,160
40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고(舊자립형)	1986	2010	33	1,132
41	경북	김천시	김천고	1951	2010	24	817
42	경북	포항시	포항제철고 (舊자립형)	1980	2010	39	1,325

* 표시 학교는 '19년 자발적 신청을 통해 '20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 외교·국제고 현황

연번	시도	행정구역	학교명	설립	개교년도	운영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1	서울	광진구	대원외국어고	사립	1984	1992	30	830	58
2	서울	성북구	대일외국어고	사립	1984	1992	32	890	65
3	서울	강서구	명덕외국어고	사립	1991	1992	30	828	63
4	서울	도봉구	서울외국어고	사립	1993	1994	30	777	50
5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	사립	1991	1992	18	471	40
6	서울	강동구	한영외국어고	사립	1990	1992	30	777	58
7	부산	연제구	부산외국어고	사립	1985	1992	30	710	58
8	부산	사하구	부일외국어고	사립	1995	1995	24	618	46
9	대구	달서구	대구외국어고	공립	1997	1997	18	435	67
10	인천	남동구	미추홀외국어고	공립	2010	2010	24	573	75
11	인천	부평구	인천외국어고	사립	1985	2004	30	797	59
12	대전	서구	대전외국어고	공립	1994	1995	30	763	79
13	울산	북구	울산외국어고	공립	2010	2010	21	510	59
14	경기	의왕시	경기외국어고	사립	2008	2004	24	660	50
15	경기	고양시	고양외국어고	사립	1988	2002	30	781	59
16	경기	과천시	과천외국어고	사립	1990	1992	30	777	60
17	경기	김포시	김포외국어고	사립	2006	2006	24	602	44
18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외국어고	공립	2005	2005	24	619	60
19	경기	성남시	성남외국어고	공립	2006	2006	24	634	59
20	경기	수원시	수원외국어고	공립	2006	2006	24	638	61
21	경기	안양시	안양외국어고	사립	1996	1997	30	772	68
22	강원	양구군	강원외국어고	사립	2010	2010	15	405	43
23	충북	청주시	청주외국어고	공립	1992	1992	24	547	53
24	충남	아산시	충남외국어고	공립	2008	2008	21	503	47
25	전북	군산시	전북외국어고	공립	2005	2005	24	467	55
26	전남	나주시	전남외국어고	공립	1994	1994	15	375	43
27	경북	구미시	경북외국어고	공립	1995	1996	15	366	43
28	경남	양산시	경남외국어고	사립	1988	1992	24	682	52
29	경남	김해시	김해외국어고	공립	2006	2006	15	372	45
30	제주	제주시	제주외국어고	공립	2004	2004	12	291	29
공립 14개교, 사립 16개교									
1	서울	종로구	서울국제고	공립	2008	2008	18	449	59
2	부산	부산진구	부산국제고	공립	1998	1998	24	527	66
3	인천	중구	인천국제고	공립	2008	2008	18	414	55
4	세종	세종시	세종국제고	공립	2013	2013	15	304	53
5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고	공립	2011	2011	24	596	70
6	경기	화성시	동탄국제고	공립	2011	2011	24	594	71
7	경기	가평군	청심국제고	사립	2006	2006	12	295	26
공립 6개교, 사립 1개교									

○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현황(49교 : 평준화 6교, 비평준화 43교)

번호	시도명	시군구	(비)평준화	학교명	번호	시도명	시군구	(비)평준화	학교명
1	세종	세종	평준화	세종고	26	경북	경산	비평준화	영남삼육고
2	세종	세종	평준화	성남고	27	경북	군위	비평준화	군위고
3	경기	여주	비평준화	이포고	28	경북	영양	비평준화	영양여고
4	강원	평창	비평준화	평창고	29	경북	칠곡	비평준화	약목고
5	강원	양양	비평준화	양양고	30	경북	예천	비평준화	예천여자고
6	강원	화천	비평준화	화천고	31	경북	성주	비평준화	성주고
7	충북	충주	비평준화	충원고	32	경남	거창	비평준화	거창고
8	충북	영동	비평준화	영동고	33	경남	거창	비평준화	거창대성고
9	충북	보은	비평준화	보은고	34	경남	거창	비평준화	거창여자고
10	충남	천안	평준화	성환고	35	경남	고성	비평준화	고성중앙고
11	충남	천안	평준화	목천고	36	경남	남해	비평준화	남해제일고
12	충남	공주	비평준화	공주대부설고	37	경남	남해	비평준화	남해해성고
13	충남	공주	비평준화	한일고	38	경남	밀양	비평준화	세종고
14	충남	금산	비평준화	금산고	39	경남	의령	비평준화	의령고
15	충남	부여	비평준화	부여고	40	경남	창녕	비평준화	창녕고
16	충남	서천	비평준화	서천고	41	경남	창녕	비평준화	창녕대성고
17	충남	청양	비평준화	정산고	42	경남	창녕	비평준화	창녕여고
18	충남	홍성	비평준화	홍성고	43	경남	창녕	비평준화	창녕옥야고
19	충남	예산	비평준화	예산고	44	경남	함안	비평준화	칠원고
20	충남	태안	비평준화	태안고	45	경남	하동	비평준화	하동고
21	전북	전주	평준화	한국전통문화고	46	경남	함안	비평준화	함안고
22	전북	남원시	비평준화	남원국악예술고	47	경남	함양	비평준화	함양고
23	전북	장수군	비평준화	한국마사고	48	경남	합천	비평준화	합천고
24	전북	익산	평준화	익산고	49	경남	양산	비평준화	효암고
25	경북	안동	비평준화	풍산고					

※ 출처 : 시도교육청 취합자료

참고3

평준화 지역 현황

< 평준화 지역 현황 >

특별시·광역시 : 평준화(8)	도 단위 : 평준화+비평준화(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도 지역의 경우 평준화 여부를 자치단체 기준으로 결정

< 도 단위 지역 내 평준화 세부 현황 >

시·도	시·군		평준화 지역
	총계	평준화	
경기	31	12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강원	18	3	춘천, 원주, 강릉
충북	11	1	청주(청원군 제외)
충남	15	1	천안
전북	14	3	전주, 군산, 익산
전남	22	3	목포, 순천, 여수
경북	23	1	포항
경남	18	4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제주	2	1	제주

참고4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관한 현장 의견

○ 학생과 교사의 경우 진로·진학과 학업 설계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지도 필요성을 강하게 공감

-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이 진로를 잘 찾아가도록 과목 선택을 돕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큰 상황

※ 고교 과목선택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교육부·경희대, '18.12)

순위	학생(응답비율)	교사(응답비율)
1	진로탐색과 과목선택 연계를 위한 교사 지도성 강화(70.1%)	진로탐색과 과목선택 연계를 위한 교사 지도성 강화(86.1%)
2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한 선택과목 개설(69.3%)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한 선택과목 개설(75.3%)
3	대학 비진학 진로결정 학생을 위한 과목 개설(63%)	선택과목 절대평가 도입(72.3%)

○ 일반고 학생·학부모는 보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희망하고, 특히 대학·기업 등 외부기관 연계 확대를 요구

-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외부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생·학부모의 공통된 의견

<표2> '고교 교육에 바라는 점' 설문 결과(교육부, '18.11)

순위	학생(응답비율)	학부모(응답비율)
1	보다 다양한 선택교과(과목) 개설 및 운영(54.9%)	대학, 교육기관, 기업 등 외부 연계 프로그램 확대(60.6%)
2	대학, 교육기관, 기업 등 외부 연계 프로그램 확대(54.8%)	교육시설 및 여건 마련(48.3%)